

학점표준화제도 개선에 앞서 대학가의 ‘학점 공감대’ 선행돼야

사회학과 천민주 cheonminju03@khu.ac.kr

“ 학점 퍼주기식 개선은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학가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만 대학 간 학점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 것 ”

학점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학교가 학점표준화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학생들이 B+ 이상 40% 제한이라는 학점 비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제도 개선은 학점 비율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학점 퍼주기’ 식 개선은 오히려 대학가 전반의 학점인플레이를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학점표준화 제도로 체감하는 학점 격차의 불리함도 해소되기 어렵다. 개선에 앞서 학점인플레이 방지를 위한 대학가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만 대학 간 학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점의 ‘불리함’을 이유로 학점표준화제도를 개선해선 안 된다. 이는 오히려 대학가의 연쇄적인 학점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학점인플레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불리함이 상대적인 기준인 만큼, 제도 개선은 곧 다른 학교의 학점을 우리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만든다. 타교는 불리해진 학점을 높이기 위해 학점표준화제도보다 학점 부여 기준을 완화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학점 제도 개선이 대학가가 학점을 놓고 벌이는 ‘치킨게임’으로 번지는 것이다. 이미 조짐은 충분하다. 최근 연세대 총학은 학교에 GPA환산식 개선을 요구했다. 주변 학교의 잇따른 환산식 개선으로 연세대의 GPA환산식이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연세대처럼 타교가 연쇄적인 학점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학점 비율 완화를 통한 효과도 반감되기 마련이다. 결국, 대학 간의 끝없는 ‘치킨게임’으로 학점인플레이만 높아질 뿐, 학점표준화제도 개선이 학점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학점 제도 개선은 대학 간 학점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도 보기 어렵다. 학점 격차 문제의 원인은 타교가 학점을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여하는 데에 있다. 타교의 학점 제도가 우리학교보다 느슨해 학점 격차가 벌어진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고려대는 일반과목의 A 비율을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2019년 1학기 고려대의 전공성적 A 비율은 50.7%로 기준보다 15%나 높았다. 학점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타교가 학점을 엄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격차를 좁힐 수 없다. 더욱이 성균관대, 서강대 등은 A 학점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엄격한 학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학교와 비교할 때, 우리학교의 학점표준화제도가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제도 개선의 당위성도 부족한 셈이다. 제도 개선에 앞서 타교의 학점인플레이 억제가 선행돼야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점의 불리함이 해소될 수 있다. 대학 간 학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대학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점 격차 문제는 학점표준화제도 개선이라는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학 간 학점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대학가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정 학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조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도출된 학점 가이드라인은 대학 간의 소모적인 학점경쟁을 줄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도 학점인플레이가 만연하지 않도록 적절히 개입해 과도한 학점 격차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점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개선의 방향은 ‘학점퍼주기’가 아닌 ‘교육적 효과’로 향해야 한다. 최근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점 부담을 완화하고 다전공을 권장하기 위해 상대평가 비율을 줄이고 절대평가와 급락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근시안적으로 학점 비율 완화를 고집하기보다, 융합전공 등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점표준화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언스플래쉬)

학점표준화제도, 그 의도는? 공부에 대한 열의 떨어트리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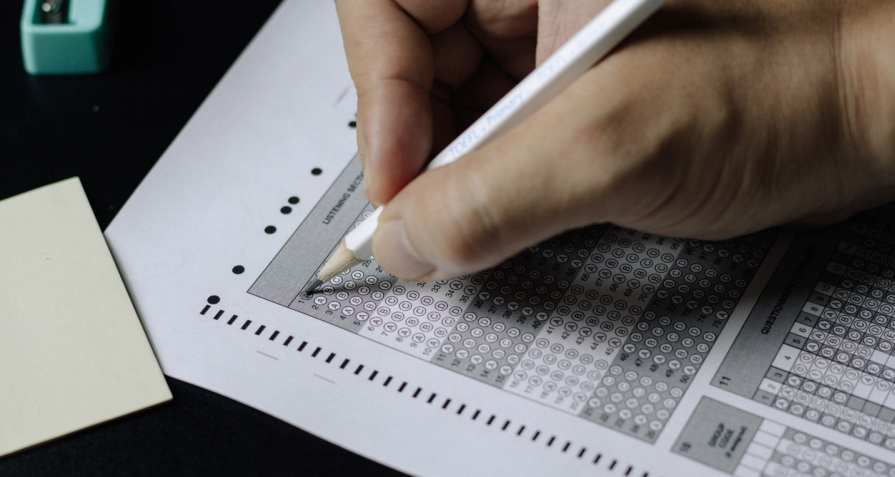
경영학과 이태훈 dlxogns9942@khu.ac.kr

“ 학점 표준화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과연 이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그 이전 제도보다 고무시킬 수 있을 지 의문으로부터 시작,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방법은 학점을 잘 받아야 하는 단순하고 공정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

결국 평가를 하고 학점을 주는 목적이 학업에 대한 열의를 고취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단순히 재산을 불리거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직업에서 프로가 돼야 하는 학생에게 우리학교가 어떠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답을 내놓는 학생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지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학점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면, 그건 좋은 학생과 좋지 않은 학생을 가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학생이란 학생의 본분에 맞게 학업에 대한 꾸준한 열의를 보이는 학생이며, 그분들이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공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점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해 따질 때, 그 제도의 시행에서 생기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완벽히 공정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기는 불공정한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시행하면서 개선할 점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학점표준화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기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과 그에 따른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불공정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좋아질 문제이지, 나빠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도의 찬성과 반대를 논할 때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건설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점표준화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연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그 이전 제도보다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업에 열의를 가지지 못하는 좋지 않은 학생의 입장에서, 일확천금을 얻는 상상을 하기도 하며, 행복이란 게 무엇일지를 고민하다 우울해 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제 전공에 대해서, 프로가 돼야 하는 길에 대해서는 소홀해졌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목표가 없어서, 공부를 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와 같은 단순한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학점표준화제도가 의도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학점을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학금을 더 준다고 하면 모를까,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방법은 학점을 잘 받아야 하는 단순하고, 공정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점표준화제도가 장학 제도를 복잡하고 불공정하게 만든다는 점이 있고,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를 더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학업에 대한 꾸준한 열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평가 구간을 표준화해서 어느 정도까지로 제한한다면, 즉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으로 바뀐다면,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할 것은 사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열의가 없을 것입니다. 장학 제도 역시 문제입니다. 학점표준화 제도로 인해 너무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장학금이 진짜로 필요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너무 조금 받거나 심할 경우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학점표준화제도의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는 학점표준화제도를 반대합니다.



(사진=언스플래쉬)